

‘화려한 방미’ 꿈꾸는 아베 ‘과거사’ 굶어 부스럼

역사교과서 수정 시도에 미국내 반발...의회 연설때 입장 표명 주목

이르면 4월 말 미국 워싱턴을 방문할 것으로 보이는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에 대해 뜻하지 않은 부담거리가 생긴 모양이다.

바로 미국 역사교과서 수정 시도를 둘러싼 논란이다.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술이 잘못됐으며 조직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공언한 것이 자칫 외교적 문제로까지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역사학자들이 “역사를 검열하려는 시도”라며 집단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미국 국무부가 ‘학술의 자유’를 강력히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데 따른 것이다.

아베 총리로서는 양국관계에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한 이번 사안을 어떤 식으로든 정리하고 가야 하는 상황에 부닥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지적이다.

아베 정권이 미국 맥그로힐 출판사에 압력을 가한 것은 단순히 사실왜곡 시도라라는 차이를 넘어 미국이 가장 신성시하는 가치의 하나인 학술의 자유를 건드렸다는 점에서 미국 조야에 간단치 않은 파장을 낳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올해 2차대전 종전 70주년을 맞아 아베 총리로부터 진정성 있는 사죄를 이끌어내고 이를 고리로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을 복원하려는 미국으로서 이번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국무부가 ‘학술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과거사 문제를 ‘자유’와 ‘화해’를 하

는 쪽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힌 것은 이런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아베 총리가 일정한 계기에 호스트 국가인 미국에 이번 사안을 포함해 과거사 문제 전반에 대해 ‘정리된 입장’을 표명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관측이 설득력 있게 대두하고 있다.

특히 아베 총리는 현재 미국과 협의 중인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 계기에 과거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 외교소식통은 “미국이 이번 방미를 한껏 대접해 아베 총리가 과거사와 관련한 전향적 입장을 표명하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아베 총리는 지난

해 7월 호주 연방의회에서 연설할 때에도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언급을 내놓았다.

다만 미국의 이 같은 과거사 압박이 ‘실리외교’ 앞에서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 오바마 행정부로서는 전반적인 국방예산 삭감 흐름 속에서 일본이 역내에서 더 큰 안보 부담을 떠맡기를 희망하고 있는데다 TPP 협상의 경우도 조기 마무리를 위해 일본과 적절히 타협해야 할 입장에 놓여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미국이 과거사 문제를 형식적이고 원론적으로 거론하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우리 정부로서는 미국 역사교과서 수정 압박 논란에 직접 개입할 수는 없지만, 미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일본을 압박하도록 외교적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

“IS 겨냥 지상전 수주내 시작”

앨런 미 대통령 특사 “이라크군 준비...연합군 화력 제공”

수니파 원리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격퇴를 위한 국제연합전선의 존 앨런 미국 대통령 특사(전 해병대 대장)는 8일(현지시간) IS를 겨냥한 대대적인 지상전이 수 주내로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앨런 특사는 이날 요르단 관영 페트라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라크군이 국제연합전선 참가국들의 도움을 받아 이 지상전을 이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앨런 특사는 이 인터뷰에서 “수 주내로 이라크군이 지상전을 시작하면 국제연합전선은 그와 관련된 중요 화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지상전에 투입될 이라크군 12개 여단을 훈련하고 무장하는 준비 작업이 이미 시작됐다고 밝히고 이라크 내에 4곳의 훈련캠프를 설치, 이라크군을 훈련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앨런 특사는 아울러 곧 동아시아 국가들이 방문, 이미 62개국에 참여하고 있는 국제연합전선에 대한 참여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앨런 특사는 이어 이라크군에 대한 무기 제공 및 훈련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미국은 가능한 한 빨리 지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다”며 미국이 이라크군에 제공한 장비의 많은 수를 빼앗기고 이라크 병력의 많은 수가 사라지고 부족민들도 괴멸된 상황에

서 미국은 16억 달러 어치의 장비를 12개 여단에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앨런 특사의 이같은 발언은 미국이 IS가 장악한 이라크 제2도시 모술을 탈환하기 위해 지상군 투입을 검토할 수 있다는 언론 보도 직후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CNN방송은 전날 이라크군이 이르면 4월 모술 탈환을 위한 지상전에 나설 예정이라며 이때 미군이 이라크군에 합류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현재 IS의 방어태세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전했다.

IS가 지난해 6월 점령한 점령한 모술은 IS가 점령한 도시중 가장 큰 이라크 제2도시다.

앨런 특사는 이날 ABC방송의 ‘디스 위크’(This Week)와의 인터뷰에서 “IS는 알카에다와는 차이가 완전히 다르다”며 “IS는 (알카에다보다) 조직이 더 잘 돼 있고 지휘 및 통제 체계, 광범위한 전투 공간에 대한 상황 인식도 더 낫다”고 말했다.

그는 IS가 미국 본토에도 위협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그것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앨런 특사는 IS가 최근 요르단 공군 조종사를 화형 방식으로 살해한 영상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IS에 명백한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그것은 연합전선을 자극했고 단결시켰다”고 지적했다.



난민촌 깜짝 방문한 교황 프란티스코 교황이 8일(현지시간) 미사 집전을 위해 산 미켈레 아르칸젤로 교구 성당으로 가던 중 예정에 없던 로마 외곽 폰테 마물로 난민촌을 찾아 이곳 거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교황은 이들과 함께 기도하고 축복도 빌어주었다. /연합뉴스

2013년 2월 이후 2년여 만에 이뤄지는 이번 방미는 사실 ‘아베 외교’의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미·일 동맹의 격상과 양국 경제협력의 질적 계고를 통해 ‘보통국가로서의 일본’을 인정받으려는 외교이벤트로 기록되고 있다는 관측이다.

안보 면에서는 미·일 상호방위지침 개정 등을 통해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진과 역내 군사적 역할 확대를 공식 승인받고, 경제 면에서는 미·일 주도의 역내 경제통합을 상징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을 마무리 짓는 계기로 활용하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일본은 아베 총리의 이번 워싱턴 방문이 최대한 ‘화려한 방미’가 되도록 하는데 외교적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여기에는 2013년 2월 아베 총리의 방미가 그해 5월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6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에 비해 상대적으로 ‘홀대’를 받았다는 일본 내부의 여론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미국 역사교과서 수정압박이 미국 내에서 예기치 못한 역풍을 불러일으키면서 아베 총리가 그리는 방미의 모양새가 나빠질 소지가 있다는 게 외교소식통들

EU 외무장관, 테러·우크라이나 사태 논의 “IS 격퇴 1조2500억원 지원”

유럽연합(EU) 외무장관들이 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점증하는 테러 위협과 최근 격화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내전 사태의 해결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수니파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의 일본인 인질 참수와 요르단 조종사 화형 이후 급물살을 타고 있는 IS 격퇴를 위한 국제공조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이라고 EU 외교 소식통들이 전했다.

EU는 지난 6일 IS 대응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향후 2년간 10억 유로(약 1조2500억원)를 지원해 시리아·이라크 등의 위기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EU 외무회의는 나이지리아 이슬람 무장반군 보코하람의 세력 확대를 저지하고 3월로 연기된 나이지리아 대선 및 총선이 순조롭게 치러지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나이지리아 선거를 앞두고 보코하람

이 장악한 북동부 지역에서 투표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이달 14일로 예정됐던 선거가 다음 달 28일로 늦춰졌다.

지난달 29일 EU 외무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에 대응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6개월 연장하고 추가 제재를 가하기로 결정된 데 이어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의 추가 제재 명단이 최종 추진될 예정이다.

앞서 EU 28개국 대사들은 지난 5일 우크라이나 내전 사태에 책임이 있는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의 개인 19명과 단체 9개를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19명의 개인 중 러시아인이 5명 포함됐으며 단체 1개가 들어있다고 EU 전문매체들이 전했다.

EU는 지난해 3월 러시아의 크림 병합 이후 러시아와 관련된 우크라이나 분리주의자에 대한 수차례의 제재를 가했다. 현재 EU의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제재 명단에는 132명의 개인과 28개 단체가 올라 있다. /연합뉴스

시리아 내전사망자 21만명...어린이 1만664명 등 민간인 절반

시리아 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21만 명을 넘어섰으며 절반이 민간인이라는 집계결과가 나왔다.

시리아인권관측소(SOHR)는 7일(현지시간) 4년 가까이 이어진 시리아 내전으로 21만60명이 사망했으며 약 절반이 민간인

이라고 밝혔다.

사망자 중 어린이는 1만664명, 여성은 6783명이었다.

SOHR는 시신의 사진과 신분증 등으로 확인을 거쳐 집계한 수치라면서 실제 사망자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지적

했다.

알카에다 시리아 지부인 알누스라전선과 이슬람국가(IS)에 소속된 외국인 사망자는 2만4989명으로 집계됐다.

SHOR는 이들 단체가 사망자수를 숨기기 때문에 사망자수 파악이 매우 어렵다면

서 이들 단체의 무장대원 사망자가 실제로는 8만5000명을 넘을 것이라고 봤다.

내전 과정에서 부상해 장애를 지니게 된 시리아인은 150만 명에 달했다. 거처를 잃고 난민이 된 이들은 370만 명이 넘는다.

시리아에서는 2011년 3월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 정권에 반대하는 반정부 시위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정부군과 반군의 유혈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연합뉴스

신축 원룸 매매

전대정문 2분! (신축 4층건물)

룸12개 (1층점포 1개, 2~3층 룸 10개, 4층 주택 1개, 옥탑)을 대리석시공, 신축

월수익 500만

매매가 6억 7천

- ① 전대정문 1분코너 룸21개 룸20개 (1층 상가 2개) 월 700만, 매매가 7억5천
- ② 용봉동 용봉지구 미래도 A 코너 룸 19개 (1층상가, 4층 주택) 엘리베이터 완비, 대지 105평, 월수익 900만, 매매가 11억
- ③ 동구 대의동 고시원 룸 72개 월수익 1천2백, 매매가 21억
- ④ 전대상대 2분 11개 4층 주택 월수익 400만, 매매가 6억5천
- ⑤ 동신대 후문 2분 룸 18개 (1층 상가) 주인세대 4층, 매매가 10억
- ⑥ 중흥동 원룸 룸12개, 상가1개, 주택1개 월세 385만, 매매가 10억

한신공인중개사 062)527-7600

상가건물매매

〈7층 사우나〉

북구 우산동 7층건물 〈울수리〉 월수익 1,000만 (주인 직접 운영시 월 1,800만 수익 발생)

매매가 13억 (보 2억, 용 6억)

염주동 상가건물 매매 3층건물 (먹거리코너) 1~2층 사무실 3층 주택 월수익 400만 (주인거주)

매매가 7억 (보 1억 용 3억)

- ① 나주시 상영동 상가건물 2층 영강초교앞 1층 6칸, 2층 4칸 월 수익200만, 매가 2억8천
- ② 서구 상무지구 정연 3층 상가 30평 (보 1억, 월수익 700만) 매매가 1억2천
- ③ 수원지구 3층 롯데마트 옆 4층중 3층 62평 월수익 150만, 매매가 2억5천
- ④ 서구 상무지구 5층건물 월세1천8백, 매매가 200억
- ⑤ 목포 용해동 전원주택 매매 (빌라부지) 도로2차선 옆 바닷가 5분 무화과 나무 식재된 대지 310평, 주택 2채, 50평 매가 3억2천
- ⑥ 수원지구 모아엘가앞 3층 85평 보 2천, 월 200만, 용 2억5천, 매가 3억5천
- ⑦ 서구 상무지구 수림6층 15평 보 3백, 월 32만, 매가 4천8백

(주)대신 010-6670-9800

사무실 임대

상무지구 사무실 임대 (5층) 평수 100평 (전용 80층) 이면도로 코너 학원리모델링함 주차3대 확보 상무지구에서 가장 저렴한

보 3천만, 월 130만

나주 상가 사무실

매매·임대

- ① 학원 2층 가능, 영강 초교앞
- ② 대덕 APT 유동인구 많음
- ③ 대지 210평 (1층 6칸)
- ④ 건물 (2층 2칸)

매매가 2억 8천

010-6670-9800

(주)대신경매

입찰부터 매매 임대까지 원스톱지원 "건축 리모델링 개발 무료상담해드림"

근린시설/ 근린주택

- ① 북구 운암동 (토 273㎡, 건물 2,916㎡) 감평가 2억4천, 최저가 1억7천
- ② 북구 중흥동 (토 133㎡, 건물 253㎡) 감평가 1억6천, 최저가 1억 1천
- ③ 남구 백운동 (토 315㎡, 건물 636㎡) 감평가 5억2백, 최저가 3억5천
- ④ 남구 지석동 (토 105㎡, 건물 88㎡) 감평가 8천1백, 최저가 5천6백
- ⑤ 북구 오룡동 (토 1,199㎡, 건물 3,987㎡) 감평가 35억6천, 최저가 24억
- ⑥ 동구 계림동 (토 445㎡, 건물 1,558㎡) 감평가 10억8천, 최저가 4억8천
- ⑦ 동구 학동 (토 169㎡, 건물 277㎡) 감평가 4억, 최저가 2억8천

근린 상가

- ⑧ 서구 치평동 (토 37㎡, 건물 165㎡) 감평가 3억6천, 최저가 1억3천
- ⑨ 광산 도산동 (토 91㎡, 건물 128㎡) 감평가 1억2천, 최저가 5천5백
- ⑩ 북구 중흥동 (토 13㎡, 건물 32㎡) 감평가 1억9천, 최저가 8천5백
- ⑪ 서구 금호동 (토 140㎡, 건물 295㎡) 감평가 6억5천5백, 최저가 4억5천8백

주요소

- ① 남구 양천동 (토 1,335㎡, 건물 135㎡) 감평가 7억8천, 최저가 4억9천5백
- ② 서구 마북동 (토 1,132㎡, 건물 278㎡) 감평가 9억9천, 최저가 6억9천9백

토지

- ① 서구 매월동 (토 1,960㎡) 감평가 3억5천, 최저가 2억4천7백
- ② 남구 봉선동 (토 417㎡) 감평가 1억6천8백, 최저가 9천4백

010-6670-9800 / 062)382-5500

경매학원강의

〈상무점/운암점〉

실전스터디반 모집중

매주 초 개강

이제는 경매 대중화 시대 나만의 재테크 꼭 준비필요!!

기본반, 고급반 실전반, 평생실전

직장인반 (저녁7시)

상무점(한국경매학원)

- 수요일 오전10시~12시(저녁7시)
- 평생실전반
- 입찰부터 임대매매, 건축(개발), 리모델링까지

운암점(대한경매학원)

- 금요일 오전10시~12시, 오후7시~9시
- 토요일 오전10시~12시, 오후2시~4시

010-6832-9700 062-382-5500